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8호 [루계 제24996호] 주제 104 (2015)년 8월 6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농기계전시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농기계전시장을 돌아보시
였다.

박봉주동지, 오수용동
지, 리철만동지, 조용원동
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능률높은 여러가지 농기
계들을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어 농촌경
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고 하시면서 현대식농기계
생산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두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농기계전시장에는
농업성 농기계공업판
리국아래 공장들에서
생산한 모내는기계와
토양관리기계, 파종 및
비배관리기계, 수확
및 탈곡기계, 축산사료
가공기계, 소형양수기
등을 포함하여 113종
에 510점의 농기계와
부속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시된
여러가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 소농기
구들을 보시면서 성능과 기술적특성을
대하여 구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해당부문
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여러
가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 소농기구
들을 창안제작하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기계전
시장을 돌아보니 내각파 농업성을 비롯
한 해당부문에서 당의 의도대로 현대
적인 농기계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것
이 알린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제건설



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주
타격방향인 농업전선의 돌파구를 열어
제끼자면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부속품
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
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기계들의 가
동률과 리용률을 높여야 노력은 절약
하면서도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
수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촌경리
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농업근로
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키
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네원
이였다고 하시면서 해당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들의 뜻을
빛나는 현실로 끌어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기계전
시장을 돌아보니 내각파 농업성을 비롯
한 해당부문에서 당의 의도대로 현대
적인 농기계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것
이 알린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제건설

들을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기 위해서
는 농기계생산자들이 농촌기계화의 전초
병이라는 본분과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
을 깊이 간직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비료는 탄약과 같고
농기계는 무장장비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농기계와 부속품, 소농기구들을 생산하
는 공장, 기업소, 농기계작업소들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 질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농기계생산에서도 주제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
적, 지방별 특성과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다용도화된 농기계들을 창안제작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생산하기 위해
서는 설계를 앞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동식, 반자동식, 수동식 농기계 설계에
품을 넣으며 세계적인 농기계생산추세를
잘 알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기계
및 부속품생산기지들을 현대화하기 위
한 뒷바탕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까운 몇해안에 이 사업을 결속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농기계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공구보
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기술자, 기능공
대력을 훈련해 꾸리고 그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기계 및
부속품생산기지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 참호인 농
업전선의 병기창이라고
하시면서 농기계생산자들
이 싸우는 고지에 더 많
은 탄약을 보내주는 구
호를 들고 맨손으로 피대
를 돌리며 전시생산을 보
장한 군자리로 동계급의
투쟁정신을 발휘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농기계생산기지들이 그존
히 마련되어 있고 우리
로동계급에게 여러가지
농기계와 부속품들을 만
들어본 경험도 있는 조건
에서 마음먹고 달라붙으
면 얼마든지 현대적인 농
기계들을 생산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생산한 현대적인 농기계
들이 사회주의 협동별들
에 꽉 차넘치게 하자는것
이 당중앙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에 전당
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
중하여야 한다고, 농기계
생산과 관련한 문제들을
자신에서 직접 풀어주고 적극 도와주겠
으니 내각파 농업성의 일군들이 농촌기
계화미증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밀고나가
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내각파
농업성을 비롯한 해당부문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해 이악하
게 투쟁함으로써 농기계들을 하루빨리
현대화하며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촌기술혁명을 힘
있게 벌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
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의 과학화, 현대
화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제길에 대
한 당의 의도를 충직하게 만들어가리라
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민족의 전설적 영웅, 절세의 애국자

빨찌산장군의 이야기 전하며 백두밀림은 끝없이 설레인다

우리 조국의 창다운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탕정

신을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혁명

의 만년재보로 귀중히 여기며 언제

나 백두산을 앙고 사는 백두산대국

의 후손들은 심장으로 말한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창다운 역사

는 항일빨찌산장군의 일상

전설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된다.

조선혁명의 발원지이고 승리의

상징이자 선군혁명의 영원한 등대인

백두산, 우리 천만군민의 마음의

기둥이 자리잡고 있는 곳, 시련에 헌

혁명의 길에서 엎어진 가지가지의 눈

물겨운 사연을 고고 간직하고 있는 항

일전구!

바리만 보아도 이 땅에 생을 끊으

나온 영광과 행복에 한껏 훌싸이게

하는 조종의 산!

백두산을 바라볼 때마다 수령님을

먼저 생각한다고 경정을 터시시면

위대한 빨찌산의 아들 김정일동지를

그리시며 장군봉에서 최후승리의 신념

을 굽히신 천하무적의 맹랑 김정은同志

의 거룩하신 모습과 더불어 우리 천만

의 가슴속에는 불멸의 혁명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더욱 승언히

울린다.

** * *

『김일성장군 만세!』

막혔던 동이 더지도록 방방곡곡에서

인민들이 하얗게 거리를 메우며 목이

터지게 만세의 환호를 울리며, 온 삶

의 리듬과 함께 열광으로 이글거리던 해

반년의 그날로부터 장장 70년이다.

단고질세의 위인, 민족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 항일의

수성상과 피어린 길을 헤치지 않으

시다면 파란많은 수난의 혁사에 영

원한 충지부를 찍은 혜방의 날을 맞

을 수 있었으려다.

이 땅에 굽이친 성스러운 역사는

불멸의 혁명 송가그대로 민족해방의 위대한 구성을 우러러 부른 인민의 다함없는 흠토로 노래를 세기 티를 끌어끌어 윤려온 위인 칭송의 장엄한 역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同志의 100년』 시는 티월한 수령을 모셔와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끌어다가 확증해 준 역사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친환경 문화를 사랑하면서도 옮기면서 풍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 덴트으로 사내와 망국을 숨겨처럼 감아야만 하였던 비참한 식민지 악소민족이 바로 한세기 전 우리 민족의 수난에 찬 모습이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극적인 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 안아오신 혁사의 힘魄이다.

100년의 나이에 벌써 인류가 죽적인 사상과 지혜의 상상봉에 오르시여 세계의 앞길을 활히 내보내보신, 고통에서 그 어떤 군사라도, 어느 전쟁에서도 모르는 비범한 군사사상과 전술, 전법으로 『불굴의 항군』으로 차지하던 일제의 암왕을 지치는 백두산칼바람, 백두산총대바람으로 풍지박산내신 전설적령장.

전인민의 초행길이었다.

파쓰경력이나 살인전쟁의 경험으로 보아도 손꼽히는, 가장 포악하고 악수적인 것으로 악명높은 일제의 판동군, 일본파시즘의 우두머리들과의 협전이었다.

한두들도 아니고 한두도 아니었다.

열번, 백번에 끝나는 전투도 아니었다.

청소한 반일인민유격대의 대오를

이끌고 소사하등판을 떠난 그로부

터 혜방의 날을 밟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혈전의 길, 혹한의 길, 기아

의 길을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헤쳐 오신 절세의 애국자의 눈물겨운 항일혁명의 길에서 엎어진 만난사연을 고고 악고있는 전구들이 눈앞에 인색하다.

광활한 백설의 광야, 18명밖에 남지 않은 대원들을 이끄시고 우리 수령께서 라자구등판을 행군하시던 때의 일은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서 참으로 끌어온듯이 확증해 준 역사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친환경 문화를 사랑하면서도 옮기면서 풍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 덴트으로 사내와 망국을 숨겨처럼 감아야만 하였던 비참한 식민지 악소민족이 바로 한세기 전 우리 민족의 수난에 찬 모습이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극적인 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 안아오신 혁사의 힘魄이다.

온 지구덩이가 통채로 매달린듯 마음이 무겁던 때, 풍도를 뿐이며 하늘을 돌아치는 혁생기, 사방에서 유킬거리는 악수의 무리, 허리치는 눈, 바단난식량, 짖기고 터져 살아 드러난 군부…

혁명인란 이다지도 고고한 것인가.

우리가 어찌든 이렇게도 힘한 벼랑끝에 서게 되었는가. 나팔을 불며 도로하게 출발하였던 우리의 대

오가 활약한 한 세상에서 영원 정진을 멈추고마는가. …

온 지구덩이가 통채로 매달린듯 마음이 무겁던 때,

우리가 죽으면 조선을 구원할 사람이 따로 없다는 박물의 신념과 의지로 한치

또 한치 만난을 해치신 걸출한 혁명가의 모습을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지.

만주별 농비란이 이야기하라.

저 멀리 천교령의 눈보라가 겨울에 예도 여름에도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에서 웃임 물어치는 것은 파연 무엇때문인가.

우리 수령께서 축하하고 고열로 신을 하였던 때였다.

우리가 여기서 주지않으면 재생의 회망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는 민족이 슬퍼하고 심망할것이다. 조선민족의 슬픔은 곧 일제의 기쁨으로 되고 조선민족의 철망은 곧 일제의 폐락으로 된다.

우리 수령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만주오지에서 굶어죽고 일어죽고 절

망에 빠져 투항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우리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나를 끌어온다. 혁사와 시대 앞에서 자기 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공동구호에서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중앙동물원 2단계 개건 공사장에서

백두산혁명군의 영웅적기상 뛸치며

조선인민군 백광훈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부탁되는 애로와 난관을 맞았지만 그들이 나가면서 말은 본관건설에서 위훈을 창조해 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올해 우리앞에 나온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카바란정신으로 삶과 투쟁하여야 합니다.』

중앙동물원 2단계 개건 공사장으로 자연박물관 다음으로 놓이게 된 본관건설은 공사경험

조선인민군

백광훈소속부대에서

이 적은 부대 군인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과업이었다.

공사초기 규모가 큰 건물

의 기초굴착은 적지 않았다.

공사조건도 어려웠다. 끝작작

임을 끌내고 콘크리트처기 시

작할 때 많은 물이 차울랐다. 지

하수를 이루며 뿐으로 퍼울려

물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최고사령부지역의 명령관찰에

서는 순간의 침체도 있을 수 없다.

이런 불같은 일념을 안고 허마

대로 뚫을 쟁고 구간별로 물을

꺼내며 콘크리트처기를 전행하

면 치열한 전투과정에 누가 지휘

새로운 속도를 축출해나갔다.

현장의 여러 개소에 자동차기

중기와 혼합기들이 배치되었

다. 승리의 열쇠는 전설기계들

을 원만히 가동시키는데 있었

다. 그려자면 세멘트와 물재를

중단없이 보장하고 혼합물생산

되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2일

간의 격전글에 난판이 국복되고

높이 세운 기초공사계획은 창조

직위를 발휘한 군인건설자들

에 의해 보완듯이 수행되었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

위용전을 힘있게 벌려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부대장병들

은 괄조공사단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속도를 축출해나갔다.

그들은 노래 「죽어도 혁명신

념 벼르지 말자」, 「가리라 백두

산으로」를 높이 부르며 달리고

또 달리였다. 결사의 의지로 혼

합물을 유방하는 이들이 한층한

층 계단을 오르는 모습은 전희의

나날에 고지우로 탄약을 나르던

혁신기사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날 베지휘관들과 병사들은

군인기질로 많은

방의 혼합물을 유방하여 계획된

콘크리트처기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되어 충막공사를 앞당겨 끝

면 기예보를 받게 되었다.

공사과정에 막아서는 난판을

뚫고 맑은 대상건설을 다그치는

위험장의 길에 전진의 9시간

이라는 치열한 전투도 있었다.

1층 충막공사처기 전투

를 하루 앞두고 다음날 저녁부

터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

기예보를 받게 되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큰물과 비바람피해 막이대책을 전투적으로

평안북도에 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

평안북도 시, 군들에서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편틈없이 세우고 있다. 이미 도에서는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로부터 도로와 철길, 살림집과 공공건물, 농경지, 중소하천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모든 시, 군들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양수보수장을 비단과 물을 끌고 무더기비가 내리면 제때에 고인물을 뿐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크고작은 저수지들과 배수문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일군들을 내보내어 큰물피해를 받지 않게 예방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도에서는 해안방조제들에서 위험계소자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보수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었다.

철간군에는 해안방조제의 위험계소들을 장악한데 기초하여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젊은 기간에 2만m²의 토탕을 쳐리하면서 1.5km²구간의 보수공사를 끝내어 성과를 거두었다. 도 간식지 견설련합기업소에서는 철간군의 해안방조제 보수공사를 적극 도와주었다.

또한 관개관리소들의 일군들

과 종업원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힘 있게 내밀었다.

신의 주시에서도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중소하천제방의 위험계소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과 강미탁파기를 동시에 진행하여 큰물로부터 농경지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정주와 운진군을 비롯한 군들에서는 장마철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력량을 집중하여 대책을 세워나갔다.

도에서는 장마철기간에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특히 송창군

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잘 해나고있다.

문천시와 안변, 천내군을 비롯한 다른 시, 군들에서도 큰물과 비바람피해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없는 가을 구제적으로 대처해 대책을 세워나갔다.

도에서는 장마철기간에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원산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에서는 언제와 수물을 제때에 보수정비하여 많은 물을 잡아 전력생산을 늘리는 것과 함께 발전설비와 수력구조물들이 큰물이나 벼락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신천일

강원도에 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장마철대책도 미리 잘 세워야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조직하고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농작물들이 비비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도의 시, 군임일군들이 협동농장들에게 배수도와 물도량을 정비하여 이에 앙수를 더하고 고인물을 제때에 뽑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장마철논물관리와 강냉이 탕기 가꾸기에 깊은 관심을 들이고 있다.

세포, 금강, 창도군을 비롯한 한산지대 군들에서는 강냉이밭들이 피해를 받지 않



- 안변군 사평현 동농장에서 -

생산에 지장이 없게 면밀한 대책을

개천지구 단판광련합기업소에 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야 하겠습니다.』

개천지구단판광련합기업소에서 장마철생산준비를 철저히 갖추어놓고 선탄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다.

장마철생산준비를 잘 갖추어놓는 것이 한해 선탄생산계획수행에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런활기업소책임인 군들은 몇 달전부터 생산을 힘있게 내밀면서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예상성 있게 전행하였다.

이들은 지난 몇해 동안의 장마철생산실태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큰물피해를 많이 받는 곳들에 피해마이데액을 짜고자 세워기 위한 협의회를 여러 차례로 전개하고 현지에 런활기임원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런활기임원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풀어주면서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짜고자 세워나갔다.

현활기임원들은 일군들과 함께 결린 문제들로

민심을 거역하는 것은 파멸을 불러오는 길이다

일본반동들이 추진하는 전쟁책임 놀음이 내외의 강력한 규탄에 격을 받고 있다.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종의원 회의에서 강행통과된다면 반발하여 도표를 비롯한 곳곳에서 수많은 각계층 군중이 「전쟁을 방지하라!」 등의 글을 쓴 프랑카드들을 들고 매일같이 집회와 시위를 벌리고 있다.

최근 일본학자 150여명이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한번 제9조는 지금도 계속 살아있는데 이를 백지화하려 한다.」 「전쟁이 유사시라고 판단하였다고 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언어로만이다.」라고 비난하면서 현 당국자가 그러한 범인을 강행통과시킨 것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밝힌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학자그룹의 입장에 한성의사를 밝힌 학자와 연구사는 1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전쟁책임 놀음은 정계에서도 신랄한 비난의 목소리로 되고 있다. 민주당 간사장은 현 당국자와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던 할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등을 돌려놓았기 때문이었다. 전 수상 무라야마는 텔레비죤방송공사의 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한법률을 변경시켜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교도통신이 진행한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3.3%가 법안이 종의원에서 강행적으로 통과되며 대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글라데슈 단체 성명 발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 해방전쟁 승리 62돐과 6.25-7.27 27년비공통화정 월간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 주재 사상연구소가 7월 2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조선을 치매할 애망밀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영웅적 조선인민의 조국수호전이였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현령한 평도밑에 조선인민이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것은 인류역사에 특기할 역사적사변이었다.

조선전쟁에서의 수치스러운 참례를 막강한 미국은 오늘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은 경애하는 김정은 각하의 비범한 선군혁명령도밑에 강력한 전쟁 억제력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반제 반미 대결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하고 있는 모든 승

리는 성과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인 민들에 쿠데타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옷 갖 전쟁연습들을 견지쳐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반체반미투쟁에서 백전백승의 력사를 창조해나가고 있는 용감한 조선인민에게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62돐을 맞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

인도네시아 정계 인사 담화 발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 해방전쟁 승리 62돐과 6.25-7.27 27년비공통화정 월간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선봉자당 중앙지도부사회총서리 리스터안도가 7월 27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원하기 위해 어려워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영웅적인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끊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국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